

## 기도

자애 깊으신 주님,

당신은 당신의 종

마리아 안토니아 빠리스의 마음에

성교회에 대한 커다란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긴급함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본받고 존경하는 저희들이

참된 사도가 되게 해 주소서.

또한 그분의 중재로써 청하는 은총을

당신의 자비로써 들어주소서.

아멘.

가경자 마리아 안토니아 빠리스

성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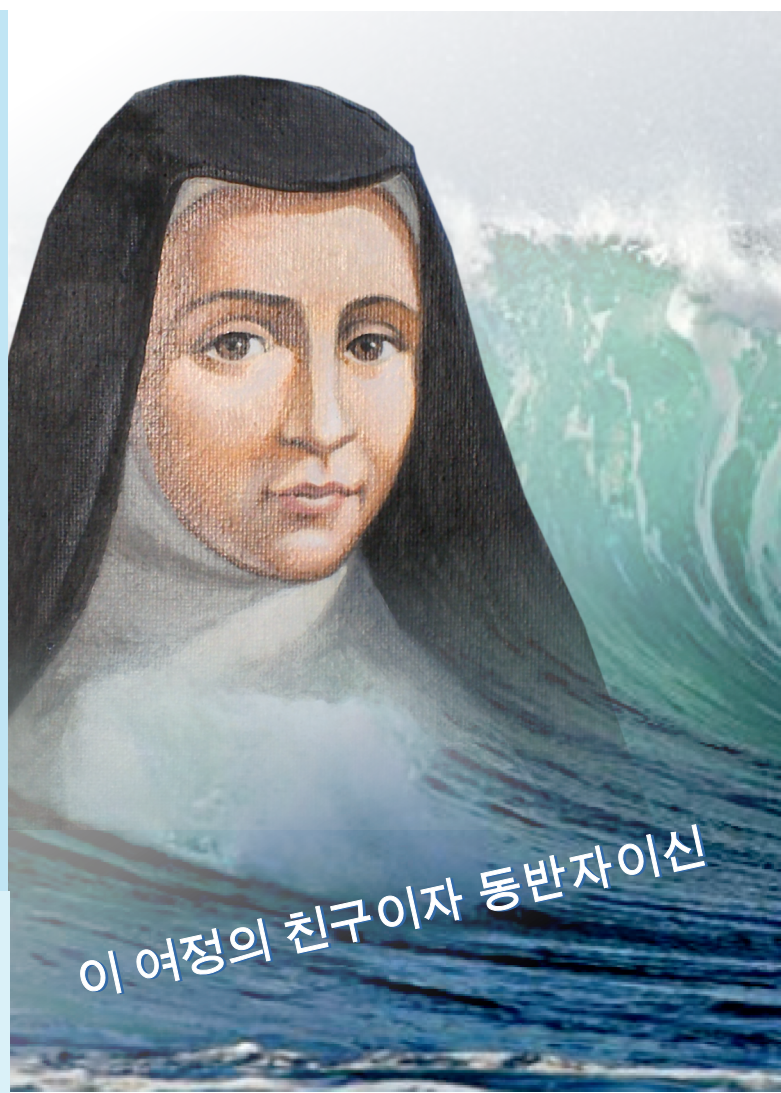
티없으신 마리아의 글라렛 선교수녀회의 공동 창립자

마리아 안토니아 빠리스의 중재를 통해 은총을 체험하신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prefespi@claretianasrmi.org](mailto:prefespi@claretianasrmi.org)

주소 : Via Calandrelli, 12· 00153 Roma, ITALIA

혹은 이 성해를 받은 수도회로 연락바랍니다.



이 여정의 친구이자 동반자이신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는 1813년 6월 28일, 스페인 타라고나의 발모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냈다.

14살 때, 그녀가 살고 있던 타라고나에서 에수폴나르보의 프란치스코 회가 선교했다. 그때 그녀의 수도 소명이 싹텄다. 1841년 그녀는 타라고나의 마리아회에 청원자로서 입회하였다. 그 당시 법률은 수련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는 9년 동안 청원자로서 지냈어야 했다.

1842년, 하느님은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에게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셨다. 1850년, 그녀는 선교사인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 신부를 만나 서사도적 사명을 위한 새로운 수도회 창립을 주님께서 계시하셨음을 말씀드렸다.

1851년,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는 젊은 몇몇 청원자들과 함께 마리아회를 떠났다. 그들은 결코 헤어짐 없이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바다도 건너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1852년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탁하며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의 초청으로 그가 대주교로 임명된 쿠바 산티아고로 떠났다. 그 다음 해에 그곳에서 가난한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복음적 권고에 따른 충실한 삶과 주님의 계명인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침"이라는 중대한 소명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1855년 8월 25일, 성글라렛 대주교는, 후에 '티없으신 마리아의 글라렛 선교수녀회'가 된, '티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사도적 수도회'의 설립인가에서 명하였다.

이 수도회는 교회의 쇠퇴를 위해 복음적 청빈의 삶과 하느님 나라 선포에 근본 토대를 둔다.

1859년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는 스페인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창립하였다. 그녀는 레우스에서 1885년 1월 17일에 선종하였으며, 그녀의 유해는 그곳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그녀의 성성(聖性)은 전 세계로 뿔어나갔으며, 그녀의 중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 마리아 안토니아 빠리스 이 여정의 친구이자 동반자이신

마리아안토니아 빠리스의 말씀을 기이 되새겨 보자.

- 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 내가 하느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느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신뢰의 마음을 심어 주셨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탱하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고, 눈앞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 하느님의 사랑은 꿀과도 같다. 그분의 사랑은 쓴 맛을 달게 하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려움을 쉽게 만들고, 매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준다.
- 하느님 안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